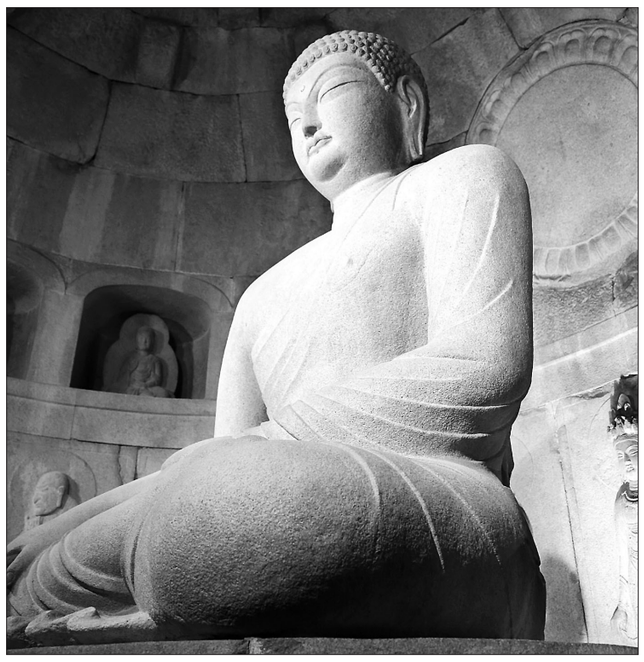
붓다, 우리를 이끄는 이상적 인간상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금강대 총장 편역)

5. 붓다에 귀의하며 받들다


국보 제24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의 본존불. 깨달은 자, 부처님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범부 중생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법과 삼보의 관계에 관해서

"부처님께 귀의하며 받들다. 법에 귀의하며 받들다. 승(僧)에 귀의하며 받들다" 이 삼보귀의의 말을 세 번 외움으로써 불교인의 신앙고백으로 한다는 규정은 붓다가 전도를 시작한지 얼마 후에 정해졌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소 표현의 변화는 있었지만 삼보귀의의 말은 언제나, 그 신행의 표백의 형식으로써 불교인들의 입에 올랐던 것이다.

진실로 불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삼보' 처럼 친근미가 깊은 것은 없으며 또 불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삼보귀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기본적인 구조에서 말한다면 불교란 틀림없이 존재의 법칙성, 즉 정법(正法)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러나 추상화된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친근하게 우리 생활실천의 힘의 원천이 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론으로서의 불교가 아니며 구체적인 생활실천으로서의 불교에 있어서는 법칙성으로서의 법은 그 뒷면으로 물러나고 삼보가 그 전경(前景)에 놓여진다. 추상화된 법은 점점 기둥으로써 그 배후에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구체화한 붓다와 교법과 승가가 불교인 생활의 중심에 놓여지는 것이다.

물론 법과 삼보(三寶)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삼보는 이것을 추상화하면 정법이며, 법은 이것에 살을 붙여서 구체화하면 삼보가 된다. 즉 법에 살을 붙여서 이것을 인간상으로 인격화 한 것 그것이 붓다이다. 또 법을 인간에 맞는 가르침으로써 설명하면 그것이 교법(教法)이 된다. 또 법이 행해지는 사회적 집단의 이상을 말한다면, 그것이 승가인 것이다.

이상 세계의 인간상

삼보의 제일보, 부처 혹은 붓다란 불교인에게 있어서 이상의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두 개의 세계에 산다. 그 하나는 물론 현실의 세계이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잘못을 반복하며 불안에 떨며 격정(激情)에 마음을 이기지 못하며 그 내 모습 위에 눈물을 뿌리면서도 여전히 삶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다.

"사람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태어나지 않는 것 사나운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이 만사(萬事)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태어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이데스의 문을 지나서 두터운 대지의 옷 밑에 눕는 것이 가장 상책이니라."

이렇게 노래한 옛 희랍 시인의 심정은 역시 가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하게 스며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전히 몸과 목숨을 아끼며 아윈 몸에 채찍질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이 현실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또 하나의 세계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들은 꿈꾸며 생각하며 소원하며 그려진 이상의 모습을 좇는다. 불교인의 소위 피안(彼岸)이란 이러한 이상의 세계이다. 또 붓다란 피안의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이 그려낸 이상의 모습인 것이다.

물론 우리들은 깨달은 이를 붓다라고 부른다. "세존은 응공(應供)이시다. 정등각자(正等覺者)이시다, 명행족(明行足)이시다. 내지는 붓다이시다"라고,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귀의의 표현 속에도 그러한 것은 분명히 엿들을 수 있다.

붓다로서의 조건에 관해서

그러면 붓다라고 불리는 인간의 이상적 모습이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때와 장소와 사람에 의해서 그 구현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는 역시 몇 가지의 원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각자(覺者)' 라는 오랜 용어가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각자' 라는 것은 붓다라는 말을 의역한 것임이 틀림없다. 어떤 경전의 주석자는 붓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축(西竺, 인도를 말함)에서는 붓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각자(覺者), 지자(知者)를 말한다. 혼미(昏迷)에 대해서 지(知)라고 이름 붙이며 우(愚)에 대해서 각(覺)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러면 각(覺)이란 무엇인가. 깨달은 자란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서 깨닫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관해서 먼저 분명하게 눈을 뜨는 것이다. 탐욕, 진에, 아견이 용솟음치는 곳에는 사람은 결코 명석하게 자기 몸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다. 단호한 부정(否定)의 저편에 자연히 인간의 있어야 할 모습, 당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여 온다. 그때 사람은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두 번째의 원리는 '정등각' 이라는 옛 경전의 말이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은 어휘 자체가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각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각의 내용은 이것을 지혜라는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옛부터 행해져 있으나 그 지혜란 어떤 지혜인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 '정등각자' 이다. 그 각(覺)은 정(正)하며 등(等)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이란 올바른 것, 등이란 보편적인 것. 따라서 정과 등의 조건을 갖춘 지혜란 모든 것, 모든 경우에 올바르게 서로 응하는 지혜라는 뜻이 된다.

자기에게는 퍽 편리하지만 남에게는 편리하지 않다면 결코 좋은 행동의 원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저 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은 인격 건립(建立)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

인간에게는 상응하지만 자연세계의 생물 무생물에게는 상응하지 않는 지혜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모순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깨달은 자의 지혜란 이런 것이어서는 안된다.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지며, 정등한 지혜를 갖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이 지혜에 내온 몸을 맡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이상적인 인간모습의 건립을 향해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세 번째의 원리는 불교 경전의 말을 빌리면 '명행족' 이라고 한다. 명행족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각행원만(覺行圓滿)' 이란 뜻이다. 지명(知名) 즉 각(覺)과 함께, 실천 즉 행(行)이 같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지혜만이 있으며 실천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며 말로만 할 뿐이며 행하는 것이 없다면 훌륭한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병폐이며 우리들도 언제나 반성함으로써 스스로 채찍질해야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병적인 상태는 도대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 것 일까. 그것은 신(信)의 부족, 발심기행(發心奇行)하는 힘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욱 이것을 파내려가면 결국 각이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진실로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철저히 살펴 볼 때, 그때 우리들은, 몸서리칠만한 놀라움과 두려움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들은 불조선덕의 가르침에 의해서, 인간의 당위(當爲)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게 됐을 때, 참으로 환희에 넘치면서 그 가르침에 귀명(歸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네 번째의 원리로서는 옛 경전이 자비라고 일컫는 실천의 원리를 첨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후의 경전들이 '불심(佛心)이란 대자비 바로 이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음이 먼저 생각난다. 붓다의 길은 먼저 자기 속에 깊게 침잠(沈潛)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반성이란 스스로의 허물을 잊어버리며, 바깥을 향해서 치닫는 길이 아니다.

자기에게 날카로운 성찰의 눈을 돌리며, 자기에게 날카로운 실천의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도야(自己陶冶)의 길을 정진하는 자가 잠시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본다. 거기에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듯이 인간고(人間苦)를 걸머지고 힘없이 인생의 여로(旅路)를 걷고 있다.

'불심이란 대자비 바로 그것이다' 라고 경전의 말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러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거리낌없는 심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시 지혜이다. 이러한 경지를 같은 경전에서 '대비(大悲)는 대혜(大慧)이다' 라고 했다. 깊이 음미해야 할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道가 나라에 있으면 나라가 중하고 道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중하다

1. 佛法은 학문의 군더더기인가 (下)

답 이른바 극치(極治)의 백성이라함은 그 몸이 다하도록 오악(五惡)을 행하지 않음이다. 오악이란 무엇인가. 살생 · 도적질 · 삿된 음행 · 허망한 말 · 술마시고 고기먹음이다.

슬프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가 많음이여, 세상이 또한 그를 다스릴 수 잇으니, 이가 형벌과 정치를 시행하는 인유(因由)이다.

비록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정제(整齊)함을 말했으나 그 방지함은 미비(未備)함이 있고 권면함도 극진하지 못함이 있다.

그러므로 착한 자는 게으르고(懈怠) 악한 자는 방종하나니, 방종하여 악을 지어도 요행히 숨기면 면하게 되므로 공자가 '부자(父子)는 서로 허물을 숨겨줌으로써 곧음을 삼는다' 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하겠는가.

구차히 면하려는 계교가 마음에 있다면 그 악을 행하는데 또한 무엇을 꺼리겠는가. 그러므로 허물을 숨기려함이 지극하면 삿된 아첨 · 거짓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어서 신하로써 임금을 속이고, 자식으로써 아버지를 속이며, 백성으로써 윗사람을 속이며, 부부 · 장유 · 붕우의 사이가 다 그렇지 않음이 없게 된다.

공명(功名)과 이록(利祿)의 사이에 급급함이 있는데 이르러서는 경쟁하고 투기하여 서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여 간특함과 속임수는 날로 성대하고, 덕과 의로움은 날로 없어져 풍속(風俗)의 마음이 날로 더욱 요탕하게 된다.

그 때문에 천지의 귀신이 싫어하지 않음이 없어 조화된 기운을 상하게 되므로 기근이 자주 이른다.

부처님이 법을 제정하심은 갖춤을 다하고 매우 엄정하여 살핌은 귀신이 있고, 국문(鞫問, 임금이 심문)함은 명부(冥府)가 있으며, 죄를 줌은 선 · 악의 두 문서가 있고, 묻거나 따짐(質正)은 저울과 거울의 두 증거가 있다. 벌을 함은 귀신과 축생도(畜生道)가 있으며 형벌함은 지옥이 있어 털끝만한 악도 도망할 바가 없으며, 상을 내림은 천당으로써 하며, 보답은 부귀로써 하며, 품류(品類)는 인륜(人倫)으로써 하며, 오르게 함은 극락으로써 하여 물방울이나 티끌같은 착함도 들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천지의 귀신이 그 몸을 보존하고 그 실천함을 보호하지 않음이 없어서 조화된 기운은 맑아져 비오는 날과 맑은 날씨가 알맞은 시기로 하며, 전쟁 도구(兵革)는 소멸하여 인민이 편안하다. 국계(國界)는 그로써 치평(治平)하고, 군신(君臣)은 그로써 경하로움이 잇는데 어찌 군더더기로 천하에 이익이 없다 말하겠는가.

주나라가 쇠약한 말기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한결같이 서로 속이는 것으로 이익을 삼으며 살육으로 공을 삼아 약한 자가 토하면 강한 자가 삼키며 서로 서로 침략하고 정벌하니 생민의 도탄이 극에 달하였다.

때에 공자 · 맹자의 성인과 현인이 있어 급하고 급하게 인 · 의 · 충 · 서(仁 · 義 · 忠 · 恕)와 선왕의 도로 사람을 훌륭히 인도하여 포폄하고 거벽(拒闢)하는 말이 진실로 이미 방도가 많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구할 겨를이 없었다.

만일 당시의 임금 · 신하 · 선비 ·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대각(大覺)의 가르침인 인과죄복(因果罪福)의 논(論)을 듣고 살아서는 비록 세상을 속일 수 있으나 죽으면 또한 신후(身後)의 과보를 면치 못함을 살피게 했다면 풍교(風敎)를 옮기고 습속(習俗)을 바꾸어 훌륭히 다르려진 세상이 되지 않았겠는가.

요즈음에 선남자와 청신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계율을 지녀 어지럽기 않은 자는 마치 연화(蓮花)가 진흙 속에서 나옴과 같아 반드시 시속(時俗)의 존중할 바 된다. 비록 부처님 · 조사의 뜰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진실로 더러운 악으로써 지칭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사람을 가정에 살게 하면 가정이 순박해지고, 관직에 있게 하면 관직이 청정해지고, 군수(郡守)가 되면 백성의 풍속이 착해지며,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나라의 운명이 새롭게 된다. 이른바 '맑은 구슬을 탁한 물에 던지면 탁한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다' 함이 이것이다. 더구나 정혜(定慧)에 전심(全心)하여, 그 도를 극진히 하는 자에 있어서랴.

옛날 심 선사가 조주(趙州)에 살았는데, 이웃 나라가 서로 공격하려 하였다. 기운을 보고 점을 치는 자가 있어 바라보고는 말하기를 '조주에는 성인의 기운이 있으니 사우면 반드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포위를 풀어 버렸는데, 도가 한 고을에 있으면 한 고을이 중(重)하고, 도가 한 나라에 있으면 한 나라가 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중하다 함이 이를 말함이 아니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대학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